

가거도 할린 태풍 '무이파'

방파제 유실·복구 되풀이 매년 '태풍 공포'

1976년 350명 피해 발생후 공사 시작

10년 완공 목표, 잇단 태풍에 30년 걸려

태풍 진로 한복판에 위치 속수무책 피해

가거도 주민들의 지긋지긋한 '태풍 파의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날까. 지난 1979년 착공, 30년 만인 2008년 완공된 가거도 방파제가 이번 태풍 '무이파'로 완공 뒤 처음으로 유실됐다. '가히 사람이 살 수 있다'해서 '가거도(可居島)'로 이름 붙여졌지만 매년 태풍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대단하다. <가거도항, 공사 기간 30년, 비용 1343억원 '기록' = 최서남단 가거도항 공사는 지난 1979년 시작됐다. 1976년 불어닥친 태풍 '프랭'으로 어선 579척이 파손·침몰당하고 3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가거도항을 피항처(국가어항)로 지정, 공사에 들어가면서다. 1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공사는 녹록치 않았다. 기껏 시설해놓은 부분은 세 차례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유실돼 같은 공사가 고스란히

반복됐다. 공사가 절반 가량 이뤄진 지난 1986년에는 태풍 베라가 닥쳐 방파제 220m가 유실됐다. 32t짜리 테트라포드가 항안으로 밀려 들어와 방파제를 망가뜨리면서 35억8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 지난 2000년 8월에는 초속 58.7m에 이르는 초대형 태풍 '프라피룬'에 백없이 무너졌다. 시공사는 테트라포드 무게를 개당 64t 규모로 늘렸음에도 8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02년에는 강풍을 동반한 제 5호 태풍 라마순으로 또다시 30억원대의 피해를 내고 방파제 유실의 아픔을 겪었다. 300억원 정도 예상됐던 예산은 방파제 공사에만 860억원이 들었고 주변 공사비를 포함해 1343억원으로 늘었다. 1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공사가 30년이 넘게 걸렸다. 파도의 세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테트라포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 방파제가 제9호 태풍 '무이파'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졌다. 태풍이 지나간 8일 오전 가거도항 방파제 호안을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큐브블록(Cube block)이 조강력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있고, 건너편 호안의 테트라포드도 상당수 유실됐다. <신안군 가거도 출장소 제공>

(TTP) 무게도 25t에서 32t, 64t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국내 최초로 108t짜리 대형 큐브블록(Cube block) 1300개를 설치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008년 6월 2일 역사적인 가거도항 준공식이 열렸다. 방파제 480m, 어선·여객선을 대는 물양장 497m, 항안으로 들어오는 파도를 다시 막는 방파제 195m가 설치됐다. 방파제 보호를 위해 64t짜리 테트라포드를 5000여개 설치했다. 64t짜리 테트라포드 한 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시멘트는 40kg 기준 250포대이다.

<준공 뒤에도 수난, 준공된 뒤 처음으로 방파제 붕괴 = 가거도항 준공 이후에도 태풍으로 인한 인공구조물 유실 피해는 잇따랐다. 지난해 9월 1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184개의 테트라포드가 사라져 14억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 복구하는데 26억원이 투입됐고 지난 6월 발생한 '메아리'에도 10여개의 테트라포드가 유실됐다.

특히 이번 태풍 '무이파'로 한꺼번에 2000개에 이르는 테트라포드와 유실됐고 108t짜리 큐브블록마저 뒤를리는 피해를 입는다면, 준공된 뒤



처음으로 방파제 250m가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대규모 피해를 입게됐다. 서해어업관련단체들은 정확한 피해 예상액을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략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거도는 대한민국 '윈디 코너' = 가거도가 매년 큰 태풍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서해상에서 올라오는 태풍 진로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다. 목포에서 배로 4시간 정도 걸리

는 망망대해에 자리하고 있는 탓에 주변에 파도와 바람을 막아줄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매년 피해가 되풀이되고 규모도 수박에 엮었다는 것. 10년 목표로 했던 소규모 방파제 공사가 30년이 걸리는가 하면, 같은 공사를 30년 동안 이어진 이유다. 오죽했으면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가거도 방파제 공사만 같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대풍속 초속 42m 무이파의 위력

프라피룬·루사 이어 3번째 강풍

108톤짜리 돌덩이도 산산조각

신안군 가거도에 설치된 방파제 200m를 부수고 무너뜨릴 정도의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의 가공할 만한 바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8일 현재 가거도에는 파도의 세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테트라포드'(Tetrapod·TTP) 5000개가 방파제를 둘러싸고 있다. 무게는 각각 64t(3963개)·108t(1037개). 64t짜리 테트라포드 한 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시멘트는 40kg 기준 250포대.

하지만, 무이파는 거대한 돌덩어리나 다름없는 테트라포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무이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한때 기록한 최대 풍속은 초속 42m(시속 151km). 초속 42m라면 공기가 초당 42m를 움직이는 것으로 100m를 2.3초에 돌파하는 물체가 느끼는 속도와 같다. 창문을 열어 놓고 시속 151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느끼는 바람의 세기를 상상하면 된다. 2000년(프라피룬·PRAPIROON)과 2002년(루사·LUSA)엔 순간 최대풍속 58.3m/s, 56.7m/s의 태풍이 불었다.

바람의 세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보퍼트 풍력계급'에 대비하면 무풍상태(0.0~0.3m/s)가 풍력계급 0(제로)이라면 태풍(32.6m/s 이상)의 경우에는 풍력계급 12로 가장 높게 규정돼 있다. 보퍼트 풍력계급은 1805년 당시 영국 해군 제독 겸 수로학자였던 프랜시스 보퍼트가 고안한 것으로 바람 세기를 표현할 때 흔히 쓴다. 따라서 광주·전남을 강타한 이번 '무이파'의 위력은 보퍼트 풍력계급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보퍼트 풍력계급은 고요(0), 실바람(1), 남실바람(2), 산들바람(3), 강들바람(4), 흔들바람(5), 뒬바람(6), 센바람(7), 큰 바람(8), 큰 센바람(9), 노대바람(10), 왕바람(11), 짝살바람(12) 등이다.

초속 17.2~20.7m에 해당하는 큰 바람은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며 바람을 안고서 길을 수 없을 정도의 세기고, 초속 20.7~24.5m의 큰 센바람은 큰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골짜기 넘어지고 기와가 벗겨진다. 또한 초속 24.5~28.4m의 노대바람은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바람의 세기로 무이파의 광주·전남 평균 초속이 29m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농작물 등의 피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대통령, 국가 방재 기준 강화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와 관련, "국가안전 방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과 방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1차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방재 관련기관들의 상호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방재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대 개편되는 국립 방재연구원을 통해 앞으로 재난안전을 총괄 연구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기존의 재난방재시스템은 한

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제 도시개발 계획에서부터 산림 식재 방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와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땃줄기가 찾아 들었어도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야. 최근 배추와 무 등 우리 국민들의 주식과도 같은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배추 등은 정부가 확보한 6만여톤을 공급하고, 모자라면 수입 물량도 늘려 가격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온 김에 좀 데리고 가면 누가 뭐라나?!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Footer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FDA certification, and various regional branches with phone numbers and addresses.